주말 인터뷰 | 프로야구 한화 한용덕 감독 & 프로농구 KCC 스테이시 오그먼 감독대행



한화 이글스는 2018시즌 페넌트레이스를 3위로 마치며 무려 11년 만에 가을야구 진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플레이오프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성과와 숙제가 모두 남은 초겨울. 한용덕 감독은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서 열정적으로 훈련을 이끌었다.
사진제공 | 한화 이글스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경력의 스테이시 오그먼 감독대행은 지난주 사퇴한 추승균 감독을 대신해 KCC의 지휘봉을 잡았다. 그는 자신의 농구 철학을 팀에 서서히 입혀나가고 있다.
용인 | 최용석 기자

"FA 영입 욕심나지만 뎁스 강화가 더 우선"

프로야구 한화 한용덕 감독

마무리캠프 투수들 모두 '선발 스타일' 훈련
젊어진 한화…노력한 만큼 기회 메시지 전달

외유내강(外柔內剛). 겉으로 보기에는 부드러우나, 마음 속은 꿋꿋하고 굳세다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다. 한화 이글스 한용덕(53) 감독은 KBO리그 10개 구단 사령탑 가운데 이 사자성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로 꼽힌다. 열정적이면서도 소통에 능해 선수들의 마음을 읽는 기술이 탁월하다. 그러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에 대해선 거침없이 질타한다. 게다가 감독 부임 첫해인 2018시즌을 통해 수 년간 코치로 일하며 갈고 닦은 지도력을 입증했고, 정규시즌 3위(77승67패)로 11년만에 팀을 가을잔치에 올려놓는 성과까지 냈다. "KBO리그에 좋은 감독이 한 명 더 탄생했다." 한화 박종훈 단장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한다. 일본 미야자키에서 마무리캠프를 지휘 중인 한 감독은 22일 스포츠동아와 만나 2018시즌을 돌아보고 다가올 2019시즌의 비전을 들려줬다. 25일 귀국을 앞두고 마무리캠프 결산도 잊지 않았다.

●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의 장이 열렸다."

-이번 캠프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

"먼저 2018시즌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부임하기 전까지 한화는 베테랑 선수들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팀이었다. 올해는 노장의 활약도 컸지만, 신진급 선수들이 새로운 자리에 들어가서 팀이 젊어졌다.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의 장이 열렸다고 생각한다. 이번 캠프도 젊은 선수 위주로 구성했는데, 이들도 같은 생각을 할 것이다."

-한 선수가 '한화에선 한 만큼 기회가 온다'고 했다.

"베테랑이든 신진세력이든, 자기가 가진 역량만 발휘할 수 있다면 맞는 말이다. 우리는 도전하는 입장이다. 새로운 선수들이 뭔가 보여준다면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다. 메시지가 전달됐으리라 믿는다."

-지난해 부임하자마자 첫 공식일정도 마무리캠프였다. 그때와 차이는.

"지난해에는 여러 경험을 했지만, 팀의 수장으로서 처음 훈련을 지휘하다 보니 시행착오도 있었다. 이번에는 뎁스(선수층)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파악했다. 그에 따라 효율적으로 일정을 짜서 잘 돌아간 것 같다."

-부임 첫해부터 큰 성과를 냈다. 2018시즌은 야구인생에서 어떤 한 해였나.

"나도 누구 못지않게 파란만장했다. 다양한 일을 해봤고, 선수를 그만둘 뻔한 적도 있다. 11년만에 가을야구에 나가고, 3위에 오른 것 자체만으로 내 인생에서 가장 '팩트'가 있었던 것 같다. 나도, 팀도 '팩트'가 있었다. 시즌 중반에 힘든 일도 겪었고, '감독이라는 게 이런 자리구나' 싶기도 했지만, 야구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시즌이다."

●양의지 등 대형 FA 영입은 시기상조 왜?

-1차 목표였던 뎁스 강화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나.

"아직 멀었다. 3위를 하면서 주변의 눈높이가 올라갔다. 성적에 대한 기대치가 커져서 부담도 크다. 아직 우리는 준비가 덜 된 팀이다. 매년 강팀의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선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 솔직히 프리에이전트(FA) 양의지 같은 좋은 선수를 욕심내지 않는 감독이 어디 있겠냐만, 그 욕심을 비울 수 있는 이유가 지금 팀의 상황이다. 단기간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지만, 멀리 보면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 같지 않아 (FA 영입은) 이르다고 생각을 굳혔다. 또 기존 선수들의 상실감도 클 것이다. 팀이 80~90%의 전력을 갖췄다고 판단했을 때 100%를 채워서 도전해야 한다. 뎁스가 더 두꺼워져야 한다."

-가장 아쉬운 부분이 토종 선발자원이었다.

"올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다. 일부러 성적이 좋지 않을 때도 밀어붙였지만, 생각했던 만큼은 올라오지 못했다. 캠프 오기 전에 코칭스태프, 특히 투수 파트 코치들에게는 '캠프지에 데려온 투수들 모두 선발 스타일로 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금 투수 몇 명은 경쟁을 해도 될 정도로 좋아졌다. 2019년에는 새로운 선수들이 또 도전할 것이다."

-2019시즌의 비전이 듣고 싶다.

"내년에도 포스트시즌에 올라가서 승부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한다. 2018시즌 활약한 선수들과 신인들이 조화를 이루면 가을야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승에도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신인들도 주전급으로 만드는 게 목표다. 그래야 매년 우승권에 도전하는 강팀으로 도약할 수 있다."

미야자키(일본)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코치들과 역할 분담 NBA 스타일로 지휘"

프로농구 KCC 스테이시 오그먼 대행

대행 직후 2연승…선수들 내 의도 즉각 반응
빠른 템포농구 대세…실수 줄이는게 최우선

전주 KCC는 '2018~2019 SKT 5GX 프로농구' 정규리그 초반 성적 부진으로 추승균(44) 감독이 사임하자 외국인 스테이시 오그먼(50) 코치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오그먼 감독대행은 팀을 맡은 후 2경기 연속 승리하며 팀을 빨리 안정시켰다. 미국프로농구(NBA)에서 15시즌을 뛰며 수비 스페셜리스트로 호평을 받은 오그먼 감독대행을 용인 KCC 숙소에서 만나 그가 경험한 한국과 한국농구에 대해 들어봤다. 오그먼 감독대행은 대부분의 질문에 매우 신중하게 대답했다.

-감독대행을 맡은 후 2경기 연속 이겼다.

"전체적으로 괜찮았다. 선수들이 내가 원하는 부분에 즉각 반응해줬다. 만족한다."

-코치와 감독대행은 다르다. 부담도 따를 텐데.

"코치는 벤치에서 감독에게 조언하는 역할이고, 감독은 최종결정을 한다. 감독대행을 맡으니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된다.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부담도 있지만 팀을 잘 정비하는 게 먼저다. 그 부분에 더 신경 쓰고 있다."

-코칭스태프 운용 방식이 한국과 미국은 많이 다르다.

"한국에서는 감독이 많은 부분을 직접 운영한다는 얘길 들었다. 감독대행을 맡고 미국 스타일로 일을 시작했다. 코치들에게 역할을 나눠주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 경기 때도 마찬가지다. 많이 상의하고, 결정은 내가 하는 식이다. 어느 게 더 좋다고는 말할 수 없다. 추구하는 방향이 같아도 상황을 보는 눈은 다를 수 있어 코치들의 의견을 더 들으려 한다."

-생활패턴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다.

"경기 준비하는데 더 시간을 투자한다. 상대 경기를 자주 보며 분석한다. 로테이션, 매치-업, 상대 선수의 습관 등을 더 면밀히 보고 있다. 또한 상대팀 감독의 스타일도 눈여겨본다. 그래야 실전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고, 즉각 대응을 할 수 있다."

-경기 때 넥타이를 꼭 매고, 벤치 앞에서는 역동적이더라.

"KBL에서 감독들에게 꼭 넥타이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한 내용은 알고 있다. 그러나 넥타이를 항상 하는 건 내 스타일이다. 깔끔한 게 좋다. 벤치 앞에서 많이 움직이는 것은 내가 선수들과 함께 뛰고 있다는 의미다. 선수에게 좀 더 에너지를 줄 수 있다고 본다."

-시즌 초반 코치였지만 선수들에게 호통을 친 일화를 들었다.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추 감독에게 양해를 구하고 경기 후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한 소리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패했다. 큰소리로 얘기하며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고 싶었다. 평소 조용했던 내가 강하게 말하니 선수들이 매우 놀라는 반응을 보이더라. (원래 강한 스타일이냐고 묻자) 많이 강하진 않다. 그러나 팀을 지휘하다보면 그래야 하는 상황들이 있다. 지금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웃음)."

-한국생활을 어떤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다. 다섯 째 아이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잘 적응하고 있다. 아내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데 지하철을 이용해서 여러 곳을 다녀왔다고 한다. 사람들도 친절하고, 안전하다. 가족 모두 잘 지낸다."

-한국 선수를 지도해 본 느낌은.

"한국 선수들은 정신적으로 매우 강하다. 배우는데 열정이 있고, 한 가지를 알려주면 쉽게 잊지 않고 빠른 시간에 몸에 익힌다. 습득 능력이 좋다. 미국선수들과 비교하면 운동능력이 제한적이다 보니 약속된 플레이가 막혔을 때 간혹 어려움을 겪기도 하더라."

-감독대행이지만 앞으로 어떤 팀을 만들고 싶나.

"A매치 브레이크를 통해 경기 템포를 좀 더 높이고, 수비는 약간 수정하려 한다. 최근 빠른 템포의 농구가 현 추세다. 빠른 템포에서 실수가 자주 나오기 마련이다. 조금 더 스마트하게 실수를 줄이는 쪽으로 선수들과 준비하려 한다."

-선수 시절 수비로 유명했다. 공격적인 팀 KCC에 수비를 이식할 수 있나.

"팀에 공격적인 선수가 많은 건 사실이다. 그런데 나는 수비를 중요시하는 코치다. 공수의 밸런스를 맞춰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감독대행이지만 스스로에게 좋은 기회인데.

"나도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기회다. 미래를 봤을 때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일이기도 하다. ('대행'이라는 말을 떼기 바란다고 하자) 그럴 수 있도록 KCC를 좋은 팀으로 만들어보고 싶다."

용인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